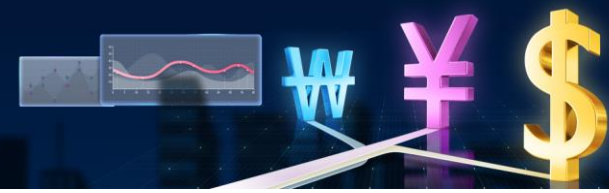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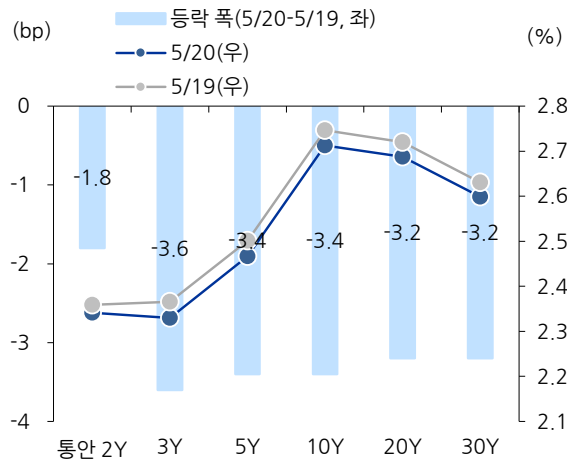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_02)368-6149_j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_02)368-6138_jhoonlee@eugenefn.com RA 유재혁_02)368-6177_dbwogur170@eugenefn.com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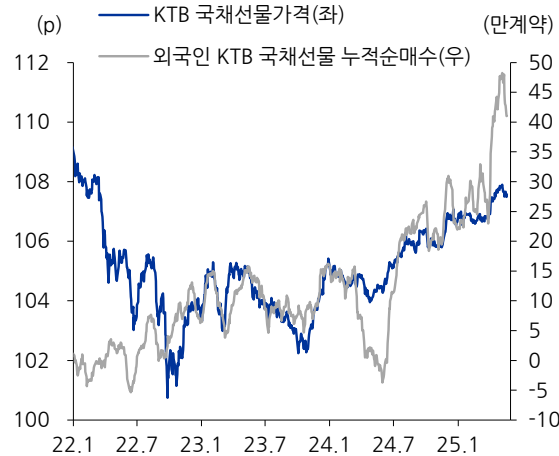
(단위: %,bp, 톱)

		5/20일	1D	1W	YTD
국내 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330%	-3.6	-4.0	-26.6
	한국 국고채 10년물	2.713%	-3.4	-0.9	-14.2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38.3	38.1	35.2	25.9
	3년 국채 선물(KTB)	107.57	8.0	7.0	92.0
	10년 국채선물(LKTB)	119.76	20.0	1.0	284.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3.968%	-1.5	-3.5	-27.2
	미국채 10년물	4.487%	3.7	1.9	-8.5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52.0	46.8	46.6	33.3
	독일국채 10년물	2.603%	1.5	-7.4	24.0
	호주국채 10년물	4.399%	-7.4	1.9	3.1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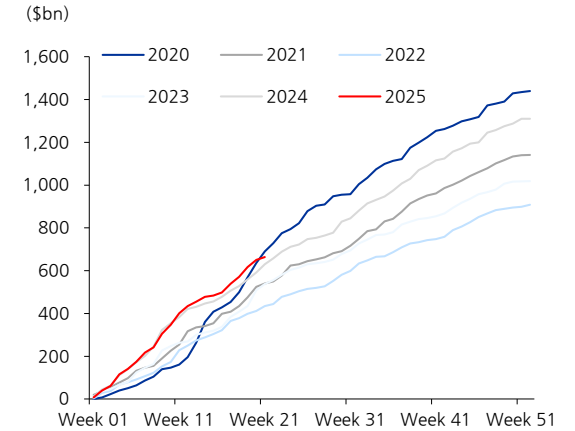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
- 전일 미국채 금리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세 유입에 하락. 이에 연동되며 강세 출발.
-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아시아장 중 미 10년 금리 반등 영향에 차츰 강세폭 축소.
- 호주, 일본 등 주요국 국채가 급격한 변동성 보임에 따라 국내 장도 적지 않은 변동성을 보임.

미국 IG 회사채 누적 발행규모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
- 미 IG 회사채 물량이 수급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 메모리데에 연휴를 앞두고 발행 선수가 나타날 여파.
- 일부 외신 보도에서 홍콩 법정 퇴직연금 미 신용등급 강등에 미국채 보유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을 제기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
- 대신 이날도 저가매수 유입, 전구간에서 약세폭이 축소. 다만 전날에 비해 매수 강도는 약한 편.
- 금일 한국 5월 1~20일 수출입, 일본 4월 수출입 등 발표 예정.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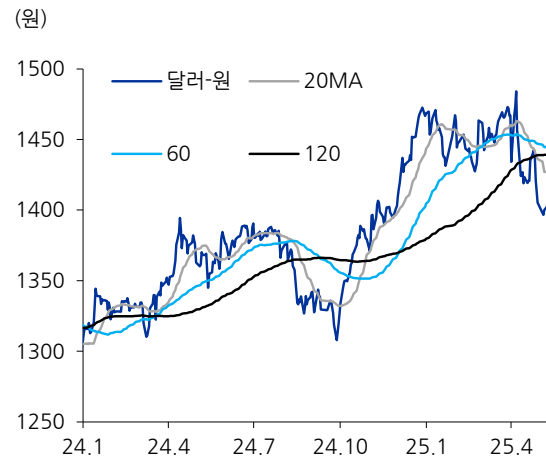


FX & Commod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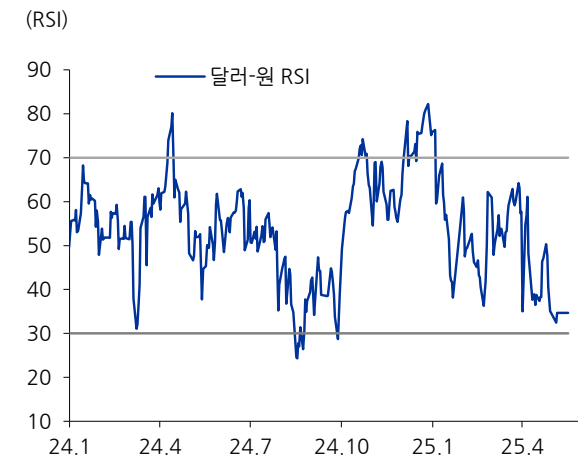
(단위: %, \$)

		5/20일	1D	1W	YTD
환율	원/달러	1,392.40	-0.4%	-1.7%	-5.4%
	달러지수	100.02	-0.4%	-0.9%	-7.8%
	달러/유로	1.128	0.4%	0.9%	9.0%
	위안/달러(역외)	7.21	-0.0%	0.2%	-1.7%
	엔/달러	144.51	-0.2%	-2.0%	-8.0%
	달러/파운드	1.339	0.2%	0.7%	7.0%
	헤알/달러	5.67	0.3%	1.0%	-8.4%
상품	WTI 근월물(\$)	62.56	-0.2%	-1.7%	-12.8%
	금 현물(\$)	3,289.98	1.9%	1.2%	25.4%
	구리 3개월물(\$)	9,565.25	0.4%	-0.4%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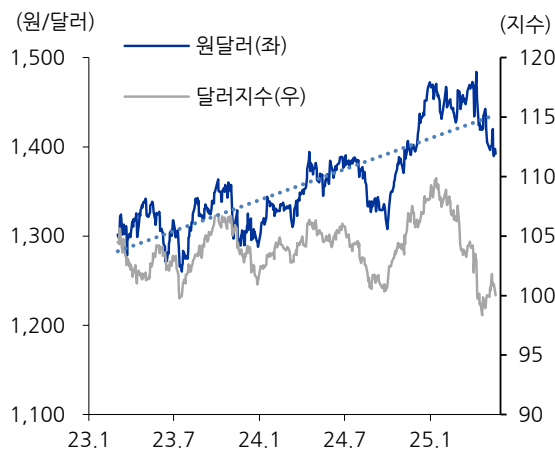
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



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5.40원 하락한 1,392.4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394.40원 마감.
-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도 전거래일 위험 회피 심리로 상승했던 달러-원은 이날 글로벌 약달러 흐름을 따라 하락. 장중 마-일 간 환율협상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등장.
- 오전 중 저점을 포함해 수차례 1,390원 하향 돌파를 시도했으나 결제 수요 및 해외 투자 환전 수요 등이 하방을 지지.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미국 국채금리에 연동되며 하락.
-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전일 미국채 금리는 빠르게 상승했고 달러도 이에 연동. 그러나 미국장 개장을 전후로 반락했고 달러도 하락세 심화.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하락한 반면 유럽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미국 자산 선호도 약화 흐름도 계속.
-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 안정을 거듭 강조.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싸울 때라고 평가.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곧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